



「작가입장에서 내용을 구성할 게 아니라 어린이세계의 갈등과 모순을 진솔히 보여주는 동화가 되어야 합니다.

와인담의 「동화 쓰는 법」을 번역중인 李相琴교수

지금 번역중

30여년간 아동문학 연구에 몰두해온 李相琴교수(57·이화여대)가 번역 중인 책은 미국의 동화작가 리

와인담(Lee Wyndham)의 「동화 쓰는 법」(Writing for Children and Teenagers 1972, 美 Writer's Digest社刊).

와인담은 국내에서는 생소한 작가이지만 약 50여편의 동화를 썼으며, 편집자이자 대학강단에서 활동하고 있어 동화쓰기 안내서를 쓰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李相琴교수는 소개한다.

「이제까지는 동화작품을 쓸 때, 작가의 입장에서 내용을 구성·전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자 와인담은 책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과 독자인 어린이의 입장 모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책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서부터 등장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이르기까지 매우 친절하고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이 책에서 아동심리학과에 주안점을 두고, 어른의 시각과 가치관으로 어린이 세계를 바라보기보다는 아이들 속으로 파고들어가 그 세계를 생생히 묘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어른의 세계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듯 어린이의 세계도 변화한다. 요즘 어린이들의 사고관이나 상상의 세계는 20년전 어린이들의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어린이의 책 내용 역시 많은 변화를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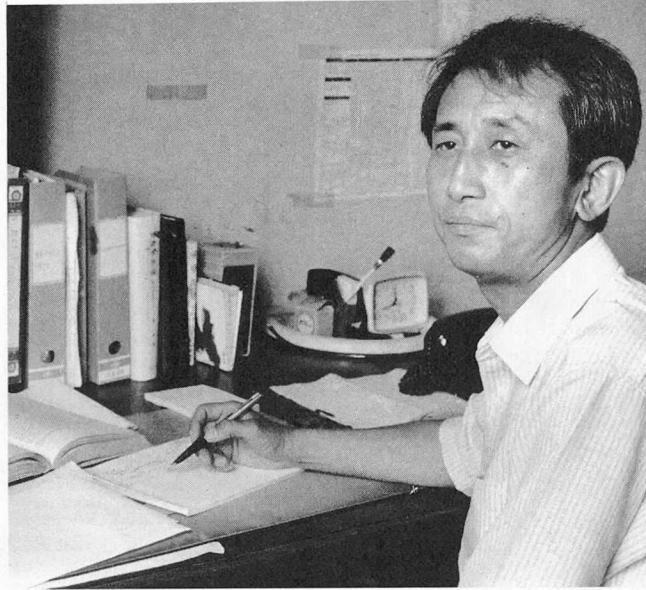
와인담은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로 인물을 양분하는 단순하고도 진부한 논리, 지나친 미화를 거부하고 어린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주변세계를 바라보는가에 늘 관심을 갖도록 강조하고 있다.

「성인문학과 어린이문학은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인문학이 인간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듯, 어린이문학 역시 그 세계를 진솔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아이들 세계 역시 나름대로 갈등이 있고 모순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좋은 아이로 만들자는 어른들의 사명식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아이들 편에서 보자는 저자의 입장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李相琴교수는 국내 창작동화가 너무나 정서적이며, 자잘한 주변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는 생활동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다. 즉 이제는 보다 활동적인 상상력과 세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서를 담은 동화가 필요하다는 것.

동화작법에 관한 이문서가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은 국내상태에서, 와인담의 이 책은 아동문학에 뜻을 둔 학생 작가 현직교사 그리고 학부모에게 매우 유의한 책이 될 것으로 李교수는 믿고 있다.

— 오에리 기자



「경제학은 실천과학이므로 현실에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카도의 「정치경제학 및 課稅의 원리」 번역하는 鄭允炯교수

지금 번역중

「리카도의 정치경제학체계는 아카데미한 연구실의 소산이 아니고 사회의 실천적 활동, 특히

나폴레옹전쟁의 말기부터 戰後에 걸쳐 여러 계급사이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표면화된 곡물법논쟁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의 「정치경제학 및 課稅의 원리」를 번역하고 있는 鄭允炯교수(50세·홍익대·경제학)는 경제학이 실천과학임을 강조한다.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초판 1817년, 재판 1819년, 3판 1821년) 그는 경제학자도 현실문제에 해답을 주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믿고 있다.

鄭교수가 석사과정에서부터 리카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리카도가 고전과 이론체계를 완성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영국시민사회 확립기에 시민계급을 대변한 실천적 이론가였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比鋒출판사가 기획하는 「경제학고전총서」의 하나로 리카도의 대표저서를 번역하게 된 동기가 된다. 경제학의 최신이론서는 수백권씩 번역출간되면서도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古典은 거의 번역되지 않은 게 한국의 현실. 번역상의 어려움 때문에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가 참여해야 될 뿐더러 그 힘든 기획을 추진하는 출판사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리카도는 까다로운 문장으로 치밀한 이론을 구사하고 있으므로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케임브리지大 출판부의 1950년판을 텍스트로 하여 82년초부터 시작한 이 번역 작업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완역 출간을 목표로 현재 2/3정도가 완료된 상태. 150여년의 간격이 주는 언어관습의 변화와 영원히 참고될 번역서로 남기기 위한 사명감이 번역작업을 늦어지게 하고 있다고 해명한다.

리카도 경제학의 주축은 투하노동가치론에서 분배론으로 연결되는 논리라고 鄭교수는 요약한다. 아담 스미스의 支配勞動價值說과는 달리 리카도는 「한 상품의 가치는 그 생산에 필요한 상대적 노동량에 의해 결정된다」는 投下勞動價值說을 주장하였다. 이 바탕에서 임금·이윤 및 지대는 가치의 분배분이라는 입장을 철저히 하여 분배현상을 생산과정 속에서 통일적으로 해명하였다. 리카도의 가치론은 리카도파 사회주의를 거쳐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로 흡수되어 좌파경제이론의 큰 기둥을 이루게 된다. 「최근 뚝·스라파·미이크 교수 등에 의해 리카도의 부흥노력이 주목을 끌게 된 이유도 현대 경제학과는 달리 리카도의 체계가 자본주의경제구조 자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鄭교수는 설명한다.

이 번역서의 출간을 통해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마저 경제학 고전을 읽지 않는 풍토가 개선됨은 물론 계급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심각했던 시대를 치열하게 산 한 경제학자의 논리가 재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엄창호 기자